

##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 .....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

## 교회교육의 현실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

## 7월 12일,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 개최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오는 7월 12일(월) 우리 교회당에서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키로 하고 일정 및 주제, 강사 등을 결정했다.

7월 12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당회실(선교관 5층)에서 실시하게 될 본 심포지움은 『교회교육의 현실 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전체 주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거의 교회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 원인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교회교육의 모습 - 즉, 교회교육을 뒷받침할 교육철학과 신학의 부재, 지식전달을 중심으로 된 교육과정, 비능률적인 교육행정과 우리의 교육환경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평가와 진단 위에 미래의 교회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이에 따른 교회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심포지움의 목적이다.

이 심포지움은 국내 전 기독교 교육학계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논평등으로 진행되는데 주선에(장신대), 이만열(숙명여대), 오인탁(연세대), 정웅섭(한신대), 정일웅(총신대), 박상진(장신대)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선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연사들과 준비위원이 함께 모여 심포지움 개최

배경과 목적 등을 설명하고 논제를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갖고 이 심포지움이 내실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교회교육에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일정 및 연사는 다음과 같다.

|             |                                                                               |
|-------------|-------------------------------------------------------------------------------|
| 10:00-10:30 | 개회예배 (설교:신성종 목사)                                                              |
| 10:30-12:00 | 논제1/ 초기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와 계승방안<br>발제: 주선에 교수(장신대) 논평:이만열 교수(숙명여대) |
| 12:00-13:00 | 점심시간                                                                          |
| 13:00-14:30 | 논제2/ 교회교육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제시<br>발제: 오인탁 교수(연세대) 논평: 정웅섭 교수(한신대)         |
| 14:30-15:00 | 휴식시간                                                                          |
| 15:00-16:30 | 논제3/ 교회학교 교육지도자 양성론<br>발제: 정일웅 교수(총신대) 논평: 박상진 교수(장신대)                        |

##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 1. 김창민 원로목사

· 5월 28일 제4회 충현올림픽 축도

##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5월 24일 교역자 수련회 설교(맞도 기도원)

· 5월 28일 제4회 충현올림픽 개회예배 설교

## 5월 24일, 교역자 수련회

교회는 오는 5월 24일(월), 인천 장봉도의 맞도기도원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갖는다. 당회장 내외분과 전 부교역자(당직 교역자 제외)들이 참석하는 이번 수련회는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현지에 가서 수련회를 갖고 오후 8시에 도착하게 된다. 이 수련회는 총 58명이 참석한다.

## 수도노회

## 남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수도노회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려진다. 따라서 사회, 대표기도, 설교를 모두 수도노회 남전도회 임원들이 담당한다.

## 성경 암송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임박

## 전 교회적으로, 6월 6일에, 각부서에서 선발이 한창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으로 실시하게 되는 성경암송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임박했다. 오는 6월 6일(주일)에 전 교회적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행사를 위해서 교회학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 자체 내에서 예선을 거쳐 교회 암송대회에 나갈 사람을 선발하는 준비가 한창이다.

예년보다 높은 관심 속에서 각 부서가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본 대회를 통해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과 특히 암송의 유익점을 많이 배울수 있게 된다. 특히 교회학교 학생인 경우 암송한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며 이런 기회를 통해 말씀을 암송하는 유익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이자 5월 28일 오전 8시 30분 정신여고 교정으로’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 제4회 충현올림픽

충현가족들의 어우러진 교제의 장인 제4회 충현올림픽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현의 전 가족은 함께 모여 교회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답게 튼튼한 사랑의 띠로 서로를 묶어 하루를 즐겁게 지내도록 합시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아름답고 즐거운 한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상의 준비와 태도로 모든 사항을 마무리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28일(금) 오전 8시 30분에 정신여고 교정에서 만납시다.



## 교사 단기 수련회

지난 5월 17~19일까지 교회학교 교사 단기수련회가 기간중 매일 저녁 본당과 갈릴리움에서 열렸다.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로써의 자긍심을 깨울 수 있었다. 또한 모처럼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함께 모여 반가워하는 모습들도 좋았다. (사진/이승철 촬영)



**사** 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데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두 가지 종류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한편에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응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불러주셨다는 자각이 전혀없이 그저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1. 부르심의 종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시는 부름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마"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부르심이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 부르심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6:8) 하면서 불러주시는 소위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불러주시는 사명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국일꾼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 2.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부르심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은 어떤 종류의 부르심입니까?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그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6절에 "너희로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은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이 사하여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오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부르심과 같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반적 부르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특별히 사명자로서 쓰시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이 직접 주십니다. 물론 교회에선 당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회는 주님의 분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당회가 지나 여러분들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 3.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로 말미암아 우리를 직접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나서 불러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

충현강단



# 부르심을 입은 자

(롬 1:1-7)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위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부르신 자와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신 성 중

<목사·당회장>

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써 그 당시 세계 모든 문화를 다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 하고 나섰을 때에 결국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살인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이도 늙고 몸도 늙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후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 쓰십니다.

둘째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께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서특별히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함께 임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의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여기에 세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특별히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수사랑 큰 잔치를 했지만 그 후에 전도하는 것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전도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전도기관은 많지 않고 친목하는 전도기관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름을 여자 친목회, 남자 친목회 그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남여전도회'라고 하

면 거기에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봄부터 전도하는 대열에 모두가 참여하여 전도운동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사명자는 부르신 자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각이 된다든지 서울시장이 된다든지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마음대로 써 주시옵소서."라는 자세를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의 과정도 함께 밟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위한 일반적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의식이 투철합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사명자는 부르신 자와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마네킹 인생

글

거리를 거닐면서 보면 요즘은 젊은이들은 모두 참 잘생겼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들은 다 뺨자 같고, 여자들은 다 미스 코리아에 나갈 사람들처럼 정말 예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표정이 별로 없다. 여자들의 경우는 더 심하다. 알고보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을 가진 처녀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 성형외과에 가서 코도 올리고, 눈에 쌍꺼풀도 만들고, 심지어 합죽턱을 톱으로 커서 예쁘게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반학 때가 되면 성형외과는 예약이 밀려서 무척 바쁘다고 들었다. 그야말로 마네킹 인생이다.

아니 부모가 물려준 얼굴에 무슨 불만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다. 필자 자신도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는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시원찮아서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지 않으나 지금은 이 얼굴이 자랑스러울 때가 많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얼굴이다.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아무리 못생겨도 마네킹 인생보다야 낫지 않는가?

글 / 신 성 중 목사



**충** 현전도대에서 훈련을 받으며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대상으로 정하고 실행의 1단계로 들어갔다. 첫 번째 대상자인 친구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였다. 나 자신 또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서로가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를 위해 92년 10월부터 관심을 가

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전도를 하였지만 아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친구였다.

그러나 충현전도대를 지도하시는 임성환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 점심 시간을 이용하기로 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 친구와 이를 후 만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모난 성격의 소유자인 친구는 남에게 뿐 아니라 부모 형제에게도 꽤 까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친구로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는 까닭인지 자존심도 강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이유 없이 작은 선물도 절대 받지 않기로 소문난 친구였기에 나의 마음속에 작은 걱정이 생겼지만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책과 천로 역장을 그 친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고 우리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무슨 일이냐며 묻는 친구에게 "너 전도하려고 한다"는 내말

### ◆ 전도훈련 실습을 하면서 ◆

불과 50분간의  
점심식사 시간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이 정 희

(장년1부)

에 그럴줄 알았다는 표정이 된 친구에게 준비한 책을 내밀면서 그 동안 주일 2부예배 시간때의 목사님의 설교와 새가족부와 전도대에서 배운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 친구에게 전도를 시작하였다.

아무말 없이 내 말을 듣던 친구는 내가 준 성경책을 펴 보는 것이었다.

그 성경책은 내가 보면서 메모도 하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에는 밑줄도 쳐 놓은 지저분한 책이었다. 나의 경험으로는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책보다 흰 책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보던 성경책을 가져왔다는 말에 그 친구는 뜻밖의 표정(?)을 나타내며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는 몰라도 우선은 너희 교회에 가 보겠다"라고 나에게 약속하는 것이었다. 약속은 4월 15일 목요일에 이루어졌지만 92년 10월부터 그 친구에게 이슬비 전도법과 7.3.1 전도법을 행한 결과 4월 25일 IV부예배에 참석하겠다는 확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과 50분 동안의 짧은 점심시간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었다.

**밤**

이 맛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을 닮기 위하여 금요찬양예배 후 기도원으로 출발 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밤공기를 가르며 1시간 남짓 달려 기도원에 도착하니 '할렐루야' 하며 네온사인 불빛이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마음속으로 아멘을 부르짖으며 집회실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쁨으로 뛰어들어 갔다.

찬송을 인도하는 집사님과 드림, 오르간, 기타, 피아노 등 각종 악기가 총 동원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마음껏 손뼉을 치며 목청을 높여 함께 찬양을 드렸다. 500여명이 모여 들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집회실엔 성령의 불이 떨어져 참으로 열기가 대단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 볼 수 없는 순수한 기쁨이 있었다. 시편 기자도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찌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찌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찌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시 150:3-6)하며 찬양하지 않았는가!

찬양으로 뜨거워진 마음에 말씀을 받은 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나의 죄인 됨을 인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나타

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죄인 됨을 인하여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하셨기에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북한선교를 위해, 교회들 위해 모인 우리들이

합심하여 쉬임 없이 간구하였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도소리가 하나님께 열납되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바라기는 금요찬양예배는 물론 기도원 금요철야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 ◆ 기도원의 철야기도회 ◆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밤

김 경 숙

(집사, 제2교구)

### ♣ 칼럼 ♣

## 가정의 신앙 부흥



최 인 근

(독서, 제14교구, 새가정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할 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정을 돌아 보며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느껴본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중한 가정이 파괴되어

간다는데에 있다.

『미래의 충격』(1970년도 출판)이라는 엘빈 토플린의 책 11장에 "파괴될 가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미래의 사회는 초산업사회가 되므로 생명공학이나 생식, 생물학이 발달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최악시하는 시리즈 결혼, 실험 결혼이 성행한다고 한다. 독신주의가 팽창하는가 하면 일부 다처제까지 등장하고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공인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책이 나온지 20년 밖에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점점 맞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회 미래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에게 더욱 고귀한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질서이다. 이 질서가 깨지면 인류는 비극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가정을 통해서만이 인류의 역사가 계승되어져 간다.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언약적이라고 말씀하신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적인 관계이다. 또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체 학교이다. 자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지며 믿음의 인격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마귀는 교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을 노리며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정교회이다.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면 마귀는 두려움에 떠난다.

가정이 파괴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가정이 사는 길은 무엇일까? 사회의 혼란, 문화의 변화, 인간의 타락 속에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가정마다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하는 사회의 풍조를 막을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최악에 물들지 않는 비결은 가정의 신앙부흥에 있다.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가정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며 "내일부터...."라고 미룰 수가 없다. "우리 가정은 합심가정이 아니니까...."라고 무관심 하지도 마라. 가정예배로 인하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가정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절대 권위로 인정되므로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고 가정 구성원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현대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 이유는 가정안에 절대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가정의 절대 권위로 군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가치관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녀간의 차이는 크다. 결국 가정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게 되고 세대차라는 이름으로 갈등만 더해지는 것이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가정의 권위를 상실한 가정은 이렇듯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귀는 교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을 노리며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정교회이다.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면 마귀는 두려움에 떠난다. 그러므로 가정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이 가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때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보장되는 것이다.

이 5월에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가정을 만들자. 말씀의 권위앞에 순종함으로! 감사가 있는 기도! 기쁨 넘치는 찬양으로!



## 토막소식

- ◆ 수도주교 연합회 주최 그림그리기 대회와 글짓기 대회가 5월 29일(토)가 어린이대공원 에서 있을 예정이어서 교회학교에서는 참가 를 독려하고 있다.
- ◆ 영아부는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성경암송 대회에 나갈 어린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자체 내 사도신경 외우기 대회를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 중이다.
- ◆ 유치부는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성경암송 대회에 나갈 어린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최종 적인 결선을 5월 23일 실시한다.
- ◆ 초등1부는 6월 13일 주일에 반별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열고 반원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며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 다.
- ◆ 초등2부는 5월 29일(토) 교회에서 운동회 를 한다. 이 날은 안민는 친구들도 데려오도 록 권유하고 있다. 30일(주일)에는 가족찬양 대회를 할 예정이다.
- ◆ 중등3부의 찬양대는 5월23일 저녁 찬양에

- 배의 찬양순서를 맡아서 열심히 연습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는 5월 29 일 예수사랑 봄잔치와 30일의 총동원전도주 일을 앞두고 기도에 열심이다.
- ◆ 대학부는 여름 수련회(6월 28일-7월 2 일)와 그후에 계속 이어지는 제자훈련 계획 을 확정하고 희망자들의 신청을 미리 미리 받고 있다.
- ◆ 청년1부는 조원들의 친목과 교제를 위해 5월 23일 오후에 조별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한다. 지정곡은 442장.
- ◆ 청년3부는 5월23일(오늘) 현회원 및 그동 안 결석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떡을 떤다며 단 합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3부 전원출발' 의 시간을 갖는다.
- ◆ 장년1부는 5월 23일 반별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갖는다. 심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학주 선생. 또한 교사양성부를 수료하여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교사로 봉사할 분을 찾고 있다.
- ◆ 소망부는 지난 주일(5월 16일) 당회장 신 성종 목사를 모시고 특강을 들었다. 당회장 부부가 특송(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도 하고 간식도 제공하며 소망부 학생들 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소망부에

- 는 매주일 각 부서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 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금주는 '유치부' 가 방문하게 된다고 한다.
- ◆ 제1연합교구(제1, 4, 15, 16, 19, 22교 구) 모임이 올림피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 점 검을 위해 오늘 IV 부 예배후 본당에서 모인다.
- ◆ 제2연 합교구(제 2, 5, 6, 18, 20, 23교구) 모임이 올 림피를 앞 두고 오늘 오후 2시 30분 교육 관 307호 에서 모여 마지막 점 검을 한 다.

- ◆ 제4연합교구(제 3, 9, 10, 11, 12, 17교 구) 모임이 올림피를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30분 교육관 314호에서 모여 마지막 점검을 한다.

## 교회에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총무과에서 근무 할 참신한 여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자 격 : 총현교회 세례교인으로써 PC를 활용할 줄 아는 자
2. 성 별 : 여 ○ 명
3. 연 령 : 20 - 21세
4. 제출서류 : 이력서 1통(사진첨부), 교구목사 추천서, 타교인일 경우 (당회장 추천서)
5. 제 출 처 : 사무국 총무과(☎ 552-8200, 교육관 402)
6. 제출기한 : 6월 5일한

## 올림픽, 참석하기 전에 알고 갑시다!!!

올림픽은 우리가 교회 밖의 다른 공공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준비 및 진행하는 측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당일 수천명의 남녀노소가 어우러지게 되는 바 다 음의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잘 알아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지원본부가 살펴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주변 시설물 보호

학교 시설물 보호에 유의하셔서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가 져 주시고 특히 정원수나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 2. 주차문제

학교 내에는 각팀 5대씩만 스티카 부착 주차할 수 있고 주 변에 편의대로 주차하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교회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지하철을 이 용하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잠실종합운동장 하차). (경기장 위치 - 잠실종합운동장 맞은편)

### 3. 의료부

본부석 후면에 설치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응급환 자는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매점이용

본부석 옆에 설치했습니다. 간편한 식사(라면, 김밥) 준비 되어 있고 다과, 음료 등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5. 화장실 이용

학교 내 1층과 3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깨끗 하게 사용하셔서 중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다.

## 많이 팔아주세요

### 루디아 연합회에서 매점 운영

루디아 연합회는 제4회 중헌올림픽에서 매점을 운영 하여 세종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여기저기 얻은 수 익금은 구제한금으로 사용한다.

채권품목은 -음료수, 아이스크림, 스낵, 김밥, 케 피, 약밥, 찜라면, 오징어 등이다.

##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김창인 목사님 : 5월28일(금) 제4회 중헌올림픽 개회예배 축도  
신성종 목사님 : 5월24일(월) 교역자 수련회 설교(맞모기도원)  
5월28일(금) 제4회 중헌올림픽 개회예배 설교
2. 이 나라의 개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랑과 용 서로 하나되게 하소서.
3.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 서.
4. 제4회 중헌올림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잔치가 되게하소서.

1953 · 교회설립 40주년 · 1993

##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업 계시판

### 1. 미주선교 찬양대

- 매주 2회씩 연습실시(주일 저녁 예배 후와 수요일예배 후)
- 일정 : 6월 25일 ~ 7월 6일
- 제 2차 수련회를 5월 6, 7일 중헌기도 원에서 가짐
- 제3차 수련회를 6월10-11일 중헌기도 원에서 가짐

### 2.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 4월 4일, 각부 교회학교 부장단 및 화강단 모임 갖고 기본계획을 전달하고 기본조직 확정
- 각 교회학교 암송대회를 대비 해서 자체내의 암송대회 및 퀴즈대회 등 실 사하고 있다

### 3. 제4회 중헌올림픽

- 4월 4일 까지 접수된 표어를 심사하 여 화강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손신애 - 고등부 1학년)
- 4월 4일 교역자, 장로 대상의 제1차

설명회를 가짐

- 심판부(부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심 판규정과 경기규칙을 결정하고 심판명 단을 확정하여 발표함
- 4월 11일 피켓 걸 심사 선발: 유 정 명 자매 (제 1교구, 청년 2부)
- 4월 11일 전교인 대상으로 제2차 설 명회 실시
- 매주일 오후 4시선교관 305호에서 올 림픽조직위원회로 모여 준비상황을 점 검
- 각 연합교구들은 모임을 갖고 올림픽 출전계획과 가장행렬 계획들을 수립

### 4. 선교대회

- 선교대회 일정을 9월 2, 3일로 잡고 기본일정표 작성, 준비작업에 들어감

### 5.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

- 모든 기본계획과 설화를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감
- 5월14일, 심포지움에 참여하여 발표 할 강사들이 모여 협의

제 4 회  
**중헌올림픽**  
1993. 5. 28  
정신여고  
운동장  
믿음 소망  
사랑 충성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